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의 구성개념 및 영향: 자녀양육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 영 신¹⁾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김 의 철²⁾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한 기 혜³⁾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효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의 구성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질적 분석은 초,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자녀의 발달단계와 부모의 성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자녀의 효도와 자녀양육효능감이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의 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적 분석을 통해 자녀 효도가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428명(부 690, 모 738)이 있으며, 초 중 고등학생의 부모가 각각 489명, 425명, 514명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부모가 가장 감동하는 효도는 순종이었으나, 고등학생 부모는 자녀가 학업에 충실할 때 가장 감동하였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생의 부모집단 모두,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효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 집단은 집안일 등 부모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효도행동으로 가장 많이 지각하였으나, 아버지 집단은 부모를 아껴주고 순종하는 것을 더욱 효도행동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녀발달단계나 부모의 성별 집단에 관계없이 모두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는 인간의 도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효도 관련 언어표현으로는 다정한 표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을 때는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과반수나 되었다. 둘째, 자녀의 효도는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매개변인인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있었다.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자녀양육효능감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 효도가 컸고, 가정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다. 이와 같이 자녀의 효도와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효도, 토착심리, 자녀양육효능감, 가정생활만족도, 순종, 학업충실, 인간의 도리, 부모자녀관계

1) 교신저자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 yspark@inha.ac.kr.)

2)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3)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엄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엄니한테 잘해야 엄니가 가셔도 내 마음에
맞힌 게 없을 것 아녀유. —“
“자식도리만 하고 있을 뿐 효도라고 할 수
없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6년째 함께 복지관을 다니는 고석운 씨는 “고생스럽지 않으나”고 묻자 “그런 말씀 말어유 죄 받아유. 올 엄니도 우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길 가다 어머니가 화장실 가야 할 때면 남자 화장실에 모시고 가는데 민망한 줄도 모른다.”며 “그게 참 맘이 아프다”고 했다(조선일보, 2009년 2월 5일). 아 기처럼 어리광부리며 때쓰는 아흔의 치매 노 모를 모시고, 매일 복지관에 함께 다니며 보살피고 드리는 일흔두 살 아들과 그 형제들이 이것은 “자식 된 도리일 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한국 사람이라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아무 말 없이도 그냥 통하는 느낌이 있다. 그것은 효도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효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가슴으로 공유되는 집단 무의식과 같다.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된다고 한다. 왜 효도하지 못하면 마음의 한으로 맺히는가? 고석운 씨가 자식 된 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효도를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간의 도리에 대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공유는 있어왔지만,

심리학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일으키는 연구의 주제로 부각되기 어렵고,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새롭게 알아볼 것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한국인의 효도에 대한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상식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토대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정리가 필요하다. 문화적 토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과, 토착심리학의 철학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Kim & Park, 2004; Kim, Yang, & Hwang, 2006)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며 꾸준히 그 토대를 다져왔다. 한국인의 토착적인 심리현상들을 심리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최상진(2000a)은 심정, 한, 우리성, 체면, 눈치, 핑계, 의례성, 팔자 등 다양한 토착적인 연구 주제들을 개발하여 이를 새로운 연구 주제들로 부각시키고 한국인 심리학을 시도하였다. 윤종희(2007)가 초 중학생 부모들의 양육행동을 분석한 결과,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는 행동 중에 부모공경이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한국인의 효도 자체가 심리학적인 연구 주제로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이에 대한 탐구는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해 나가는데 핵심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 심리 중에서도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경험과학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통해 관계적 자기를 규명하려는 노력(박영신, 김의철, 2004a)과 더불어, 신뢰의식이나 성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스트레스 경험과 청소년 일탈행동 등을 한국인의 부모자녀 관계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박영신, 김의철, 2004b)이 있었다. 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와 김현정(2007)은 한국인의 관계적 자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다. 그러한 도구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하위 개념으로 구성된 한국인의 관계적인 자기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Park(2008)은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성취 및 삶의 질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 등 심리특성들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 현상은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에서 심도 있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 토대하여 정리되었다. 즉 부모와 자녀는 독립된 존재라기보다 관계적 자기로 심리적 유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부모는 자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무조건 제공하고, 자녀의 높은 성취는 부모에게 대리적 성취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 현상의 심리적 토대가 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에서 효도는 어떠한 심리적 역동의 과정을 거치고, 결과적으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은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 개념모형(Park,

2008)으로서, 효도의 구성개념과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부모들의 자녀양육태도에서 드러나는 토착적인 특성의 예를 든다면,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이라든가, 또는 자녀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압력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농경시대 한국에서 생활의 기반이 되는 논과 소를 팔아 자녀를 공부로 시켰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방식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투입하는 한국 부모들의 모습은 쉽게 발견된다(박영신, 김의철, 2002).

부모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태도는 자녀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유발하고(Park, 2002) 부모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며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즉 부모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김의철, 박영신, 2004). 부모의 희생에서부터 시작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신뢰는 부모에 대한 존경으로 연결된다(Suh, Kim, & Park, 2009). 또한 청소년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신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모두 희생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힌 연구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도, 그림 1에서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심리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부모에 대해 죄송하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마음은, 자녀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유발하고, 본인의 생각과 달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게 하는 과정을 통해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형성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스스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

으로 부모를 아끼는 마음과 보다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마음 및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신영이, 박영신, 김의철, 2009).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가정생활에 임하는 자녀들은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가정생활에서 만족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만족한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부모를 아끼는 마음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고 나아가서 가정과 학교에서 만족하게 잘 지내면,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잘 성장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자녀가 보이는 이러한 심리 행동적 특징들이 부모의 시각에서는 효도로 인식될 것이며, 그림 1의 왼쪽 부분에서 정리된 내용이다.

그림 1의 오른쪽 부분을 보자.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강한 성취압력은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인 통제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높은 기대를 하며 실제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지를 느끼게 한다. 부모의 강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어 왔다(Kim & Park, 2006b). 다양한 유형의 자기효능감이 있지만 높은 학업성취와 생활만족도는 자기조절효능감이나 관계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Kim & Park, 2006a). 높은 성취를 위해 능력보다는 자기조절이 중요하며, 그러한 자기조절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은 노력과 인내인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이는 능력이 탁월한 경우보다 성취동기가 높아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학업성취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부모의 관심과 기대 그리고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만이 아니라 자녀의 성취동기도 높인다. 이종민과 최영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가족응집성과 가족 융통성은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짐으로써, 가족기능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성취압력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의철, 박영신, 1999).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겠다는 강한 책임감과 목표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높아진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는 자녀로 하여금 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충실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를 높인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박영신, 김의철과 정갑순(2004)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높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심리적 역동은 많은 연구들에서 검증되어 왔다(김의철, 박영신, 2008).

한편 그림 1의 윗부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희생과 성취지향이 자녀의 심리행동에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부모의 희생과 성취압력이 자녀에게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심리 행동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심리와 행동에 서로 영향을 준다. 즉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이나 부모의 성취압력과 같은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취와 만족 및 잘 성장함이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심리와 행동에 상호 역동적인 작용을 한다.

예컨대 부모에 대해 느끼는 죄송함이 순종이나 생활만족으로만 연결된다기보다는, 성취

동기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박영신, 김의철과 정갑순(200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죄송함은 성취동기를 증진시키고 학습시간을 향상시켰으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는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학업성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한다.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강한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에서의 생활만족도를 의미 있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상호 역동은 결국 인간의 마음이 하나의 변인과 하나의 변인간에 단순 연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간의 동시다발적인 복합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증거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 스트레스만 종속변인으로 연구한다고 반드시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마음 속의 만족과 행복의 부분도 역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2009)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에서 한걸음 나아가 인간의 마음은 모순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외생변인을 모두 통제된 흰 쥐에 대한 실험 결과가, 역동적인 변화를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오히려 낮은 설명력을 보일 수도 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학창시절을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를 이루고, 만족한 생활을 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 성취와 만족의 정적인 관계는 한국사회에서 학업성취의 기반 없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과는 관련될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거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를 가졌을 때, 자녀의 마음과 행동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그림 1의 세로 화살표로 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효도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를 믿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함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학업에서 성취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만족하며 심신이 건강하게 잘 성장했을 때, 그러한 심리와 행동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와 공유된 자기개념을 갖고 있기(박영신, 김의철, 2004a) 때문에, 자녀의 성취와 만족 자체가 부모에 대한 효도로 된다.

그림 1의 피이드백 화살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녀의 성취와 행복은 자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피이드백이 되어, 부모 삶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부모가 아무리 개인적 성취를 이루었어도 자녀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한국 부모의 경우 개인의 성취만으로 완벽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으며 반쪽짜리 성공이 되고 삶의 만족도 그만큼 줄어든다. 자녀의 성취와 성공 여부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핵심 변인인가는,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다.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

하며 성취하는 것이 부모의 가정생활만족을 증진 시키는데는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의 증진이라는 심리적인 역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가 잘되면,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능력이 있어서 잘되었다는 자녀귀인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잘 키웠구나를 생각하며, 양육효능감이 증진된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가 기대한 만큼 잘 성취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그 자녀의 문제이기 이전에 부모의 책임이고 반성할 과제가 된다. 한국 성인의 경우에, 자녀양육효능감이 높아지면, 가정생활만족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증진된다는 심리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박영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자녀가 성취하거나 만족하면서 잘 성장하는 것이 결국 가정 화목의 토대가 된다. 한국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족으로

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을 때 부모들은 본인이 희생을 해야 한다고 반응하고(최중숙, 박영신, 김의철, 2003), 자녀들은 본인이 순종을 해야 한다고 반응하는(함병미, 박영신, 김의철, 2003)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다. 그런데 부모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내용의 핵심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성취를 통해 대리적 성취를 경험하기 때문이다(Park, 2002). 나아가서 한국 성인의 행복감은 자녀의 성취 정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박영신, 김의철, 2009). 그리고 자녀에 대한 신뢰는 자녀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 향상된 자녀양육효능감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9). 그런데 한국 성인들이 자녀를 신뢰하는 핵심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었다(김의철, 박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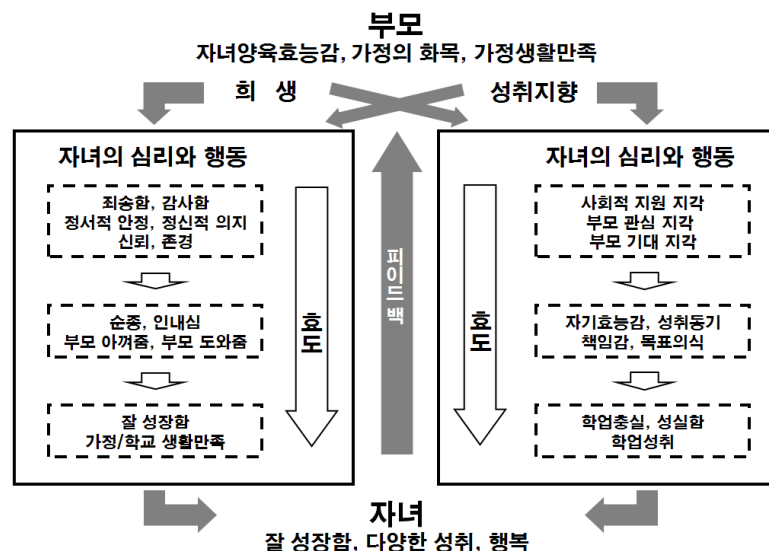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잠정적 개념모형: 효도의 심리적 과정과 영향
Park(2008)

2004). 이러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자녀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가정화목에 기여한다는 매우 흥미로운 연결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자녀가 잘되면 부모는 자녀양육효능감도 증진되고 가정생활에서 만족도도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화목한 가정이 된다. 부모는 높아진 자기효능감에 힘입어 더욱 자녀에게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높은 성취에 대한 기대 수준을 갖고 계속 성취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자녀는 더욱 성취와 만족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한국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한국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라는 심리적 역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Kim & Park, 2008; Park & Kim, 2004).

그림 1의 모형은 아직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개념들간의 부분적인 관계들이 현재 계속 검증되고 있는 단계이며, 이러한 경험과학적 연구 결과들의 누적을 통해, 모형이 계속 수정 보완되어 나가는 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일부 개념과 개념들간의 관계가 하나씩 검증되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모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더 많은 과학적 검증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모형에 포함된 구체적인 개념들간의 관계를 경험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경험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에 토대하여 모형 자체도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어 나가야 한다.

그림 1은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 역동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석의 한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자녀의 효도가 어떠한 심리학적

인 개념들로 구성되는 것이 가능할지, 자녀의 효도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효도의 결과로 부모의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의 구성개념을 분석하고, 자녀의 효도가 자녀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최근에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효도는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증진된 자녀양육효능감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매우 의미있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으나, 그동안 효도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나 누적된 결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서 1회적으로 밝혀진 결과만으로 어떠한 결론을 성급히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 번의 연구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른 고등학생 부모집단을 표집 하여 변인들 간의 역동에 대해 누적된 연구가 필요하고, 결과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검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 부모만을 표집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부모로 일반화하기도 한계가 있다. 초등학생의 부모는 연령이 30대부터 시작되는데 고등학생의 부모는

50대도 있으므로, 부모집단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세대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부모집단을 표집 함으로써, 폭 넓은 부모 세대집단의 의식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 중학생 부모집단으로 표집을 확대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게다가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서는 자녀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에 있어서 부모집단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모형 검증에 있어 동일한 패턴이 발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양적 분석만이 아니라 질적 분석에서 분석대상 집단을 달리 하였을 때 일치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서 채점자간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결과의 타당도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번의 연구 결과만으로는 결론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효도에 대한 연구를 누적할 필요가 시사되었고, 이것이 이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효도에 대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탐구하는 기초 자료를 누적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서 자녀의 효도가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

하고 검증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정경제수준보다는 자녀효도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강하였다. 이는 관계적 자원이 경제적 자원보다 행복을 결정하는데 4.5배 더 중요하다고 밝힌 최근의 연구결과(박영신, 김의철, 2009)와 일치한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서 자녀의 효도는 자녀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녀양육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킴으로서, 자녀양육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한편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원과 성인의 행복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에 있어 심리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와 같은 건강에 영향력이 있음은 Bandura(1997)에 의해 제안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검증되어 왔다.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영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이 검증되었다.

그림 2에서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선이 가정된 것은, 성인의 생활만족도가 경제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에 토대한 것이다. 김의철과 박영신(2006)의 연구에 의하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경제력이, 이와 반대로 삶의 질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도 경제력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리고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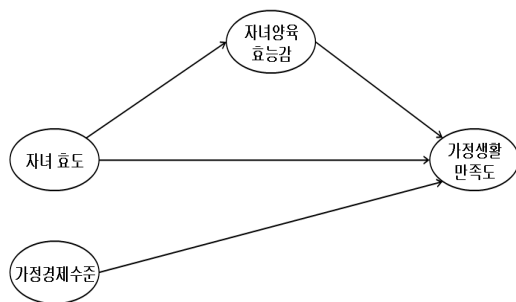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자녀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수입의 영향력이 다른 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어쨌든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총 분석대상 수는 1,428명으로서, 초등학교 부모 489명, 중학생 부모 425명, 고등학교 부모 514명이었다. 그 중에서 아버지 집단이 690명, 어머니 집단이 738명으로 구성되었다.

집단별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부모 경

표 1. 분석대상

	초등학교 부모	중학생 부모	고등학교 부모	계
부	224	207	259	690
모	265	218	255	738
계	489	425	514	1,428

우 32세에서 45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40.32세였다. 중학생 부모의 연령 범위는 36세에서 49세였으며, 평균 연령이 43세였다. 고등학교 부모는 40세에서 56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45.12세였다.

학력 분포는 초·중·고등학교 부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50% 이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세 하위집단을 합하여 학력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52.4%), 그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많음으로써(40.5%),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초등학교 졸업 0.7%, 중학교 졸업 2.5%, 대학원 졸업 3.8%).

직업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부모집단 모두에서 직업 중에서는 사무/관리직이 가장 많았고,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서비스직이 많았다. 어머니 집단만 보면 전업주부가 53.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이 20.4%이고, 나머지 세 가지 직업 유형은 모두 10%에 약간 미달하였다. 전체 집단별로 보면 전업주부/무직(28.4%) 노동/생산직(11.8%) 판매/서비스직(22.9%) 사무/관리직(24.0%) 고위관리/전문직(12.8%)의 분포를 보였다. 그러므로 응답자들의 직업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초·중·고등학교 부모 집단 각각이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7% 이상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분포가 유사하였다. 세 집단을 합한 전체 집단의 반응경향은 최상(0.5%), 상(9.4%) 중(77.3%) 하(12.1%) 최하(0.6%)로서 거의 정상분포의 형태를 보였다. 본인이 지각한 사회계층을 하위집단별로 분석

하였을 때에도 세 하위집단 모두에서 중류층이라는 반응이 80% 내외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집단을 보면 최상류층(0.5%) 상류층(6.5%) 중류층(78.4%) 하류층(14.0%) 극빈층(0.5%)으로 중류층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이루고, 그 다음으로 하류층이라는 응답이 상류층이라는 응답보다는 약간 더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정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30대에서 50대의 부모들이며, 평균 연령은 42.85세이고,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92.9%이며, 직업은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고, 경제수준 및 사회계층은 중간 정도가 약 80%에 가까운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와 동일하였다. 질문지의 앞부분에는 배경 정보가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가정 경제수준, 사회 계층 변인이 포함되었다.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의 구성개념 분석을 위해 6개의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1)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합니까? (2)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합니까? (3) 자녀가 효도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됩니까? (4)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5) 자녀가 어떻게 할 때 불효라고 생각합니까? (6) 자녀가 어떻게 효도할 때 가장 감동

됩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을 1개만 기록하게 하였다.

문항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여 코딩스킴을 만든 뒤에, 동일한 효도 질문지로 다른 데이터를 직접 질적 분석을 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다른 연구자가 1,428명의 질문지를 재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자가 코딩하고 분석한 코딩스킴을,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 참여하였던 숙련된 연구자에 의해 다시 재분석한 결과들에 토대하여 채점자간 일치도를 구하였다. 표 5에 응답한 1,239명 중에서 1,212명의 응답이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97.8%의 높은 채점자간 신뢰도를 보였다.

효도와 자녀양육효능감 및 가정생활만족도와 의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을 위한 변인들이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양적 분석을 위해 포함된 세 변인에 대한 신뢰도를 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세 측정변인의 신뢰도 모두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모두 $\alpha = .80$ 이상의 수준을 보임으로써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녀 효도 변인은 본인, 배우자 및 주위 사람들이라는 3자의 시각에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총 3개 문항에 대해, 답지는 ‘전혀 아니다’에

표 2. 측정변인의 신뢰도

변인	문항	Cronbach α			
		초 부모	중 부모	고 부모	전 체
자녀효도	1 2 3	.85	.83	.85	.85
자녀양육효능감	1 2 3 4 5 6	.85	.85	.86	.85
가정생활만족도	1 2 3 4	.80	.83	.84	.82

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녀효도의 신뢰도는 $\alpha = .83 \sim .85$ 사이로 양호하였다.

자녀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실제적인 양육의 기술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Bandura(2000)의 가족효능감 질문지를 김의철과 박영신(2001)이 번역하여 사용한 질문지 중에 내용타당도를 기준으로 하여 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답지는 ‘전혀 잘할 수 없다’에서 ‘매우 잘할 수 있다’로 구성된 5점 척도였다. 자녀양육효능감의 신뢰도는 $\alpha = .85 \sim .86$ 으로 양호하였다(표 2 참고).

가정생활만족도는 평소에 가정에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4개 문항으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답지는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값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2를 보면 가정생활만족도의 신뢰도는 $\alpha = .80 \sim .84$ 였다.

3. 실시 및 분석방법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각각 학급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성실한 응답을 얻기 위해 모든 응답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였다. 학생들이 부모들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였으며, 부모가 실시한 질문지를 받아와서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질문지 실시기간은 2006년 4월 한 달간 이었다.

초등학생 부모 549명, 중학생 부모 462명, 고등학생 부모 544명으로, 총 1,555명의 자료

가 수집되었다. 그러나 회수한 질문지 중에 불성실한 질문지들은 제외되었다. 그 기준은 양적 질문이나 질적 질문에 대해 응답을 누락한 문항이 많든가, 질적 질문에 대해 질문 내용과는 무관하게 장난처럼 엉뚱하게 기록한 경우로 하였다. 이렇게 검토하여 성실한 응답이 확인된 1,428개의 질문지만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표 1 참고).

양적 문항은 응답한 답지가 그대로 숫자로 입력되었다. 입력된 자료는 모두 입력 오류에 대한 재검토를 철저히 하였다. 입력이 검토된 최종 자료로 상관분석, 경로분석 및 효과분석이 시도되었다.

개방형 문항의 분석은 모든 질적 응답을 그대로 입력한 뒤에, 유사한 반응들끼리 모으고, 각각의 항목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을 명명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정리된 항목들 중에 유사한 항목을 그룹으로 하여 개념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개념 범주에 대해서도 구성 항목들의 의미를 가장 잘 대표하도록 명칭의 붙였다. 항목과 범주를 결정하고 명명하는 과정에서 석사 및 박사 연구원 5-10명이 수십 번에 걸친 논의 및 검토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교하게 수정 보완된 범주와 항목들은 효도 관련 개념적 틀로 명명되었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은 SPSS version 13.0을, 경로분석 및 효과분석은 LISREL version 8.51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효도 행동, 효도 언어적 표현, 가장 감동적인 효도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를 효도의 행동, 효도의 언어적 표현 및 가장 감동적인 효도라는 세 측면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행동을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전체 집단의 반응을 보면, 세 가지의 대표적인 개념 범주가 부각되었다. 즉 부모를 도와줌과 부모를 아껴줌 범주가 20% 이상의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순종이 20%에 가까운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세 가지의 대표적인 범주 외에도 성실함, 애교 부림, 학업 충실, 잘 성장함이 모두 5~10% 사이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므로 자녀가 이와 같이 집안일 등을 통해 부모를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안마해 주는 행동 등 아껴주는 표현을 할 때,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일 때,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10명 중의 7명 정도는 그것을 효도 행동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들이 지각하는 효도 행동으로는 성실하게 스스로 잘 한다든가, 애교를 부린다든가, 학업에 충실하다거나,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지각할 때, 이러한 유형의 행동들이 모두 자녀의 효도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위집단은 자녀가 초 중 고등학생인지의 여부에 따라 발달단계별로 살펴보고, 또한 부모의 성별 즉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자녀발달단계별로 보면, 부모를 도

와줌 범주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부모 모두 30%에 가까운 비율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러나 고등학생 부모는 부모를 도와줌 범주에 대해 거의 20%의 반응율로서 상대적으로 초 중학생의 부모보다 반응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부모 집단 내에서 반응의 상대적인 비율을 비교해 볼 때에 부모를 아껴줌 범주보다 낮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부모들일수록 자녀가 보다 구체적으로 집안일 등을 통해 부모를 도와주는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을 효도 행동으로 인식한다면, 고등학생 부모들은 구체적인 집안일 보다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해주고 위로해 주는 등 아껴주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효도행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한다는 차이를 보였다.

자녀발달단계별로 보았을 때 흥미로운 결과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부모에 비해 중학생 부모가 자녀의 효도 행동으로 순종에 높은 가치를 둔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녀가 중학생 시기가 되면 사춘기 시기로서 어렸을 때에 비해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순종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의 순종을 효도행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부모별 반응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집단은 자녀가 안마한다든가 부모를 생각해주고 부모를 아껴주는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을 효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30%에 가까웠으며,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 효도 행동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표 3.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행동

	전체(%)	자녀발달단계별			부모별	
		초 부모(%)	중 부모(%)	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
1. 부모를 도와줌	333 (25.9)	138 (29.2)	110 (27.5)	85 (20.6)	78 (12.8)	255 (37.6)
① 집안일 도와줌	141 (11.0)	55 (11.6)	49 (12.3)	37 (9.0)	19 (3.1)	122 (18.0)
② 심부름	75 (5.8)	37 (7.8)	24 (6.0)	14 (3.4)	30 (4.9)	45 (6.6)
③ 청소함	55 (4.3)	18 (3.8)	17 (4.3)	20 (4.8)	8 (1.3)	47 (6.9)
④ 설거지함	45 (3.5)	17 (3.6)	16 (4.0)	12 (2.9)	4 (.7)	41 (6.0)
⑤ 구두 닦아줌	17 (1.3)	11 (2.3)	4 (1.0)	2 (.5)	17 (2.8)	-
2. 부모를 아껴줌	303 (23.6)	120 (25.4)	81 (20.3)	102 (24.7)	175 (28.8)	128 (18.9)
① 안마해줌	215 (16.7)	84 (17.8)	63 (15.8)	68 (16.5)	134 (22.0)	81 (11.9)
② 부모를 생각해줌	52 (4.0)	22 (4.7)	14 (3.5)	16 (3.9)	22 (3.6)	30 (4.4)
③ 위로가 됨	19 (1.5)	6 (1.3)	2 (.5)	11 (2.7)	10 (1.6)	9 (1.3)
④ 기념일을 챙겨줌	17 (1.3)	8 (1.7)	2 (.5)	7 (1.7)	9 (1.5)	8 (1.2)
3. 순종	227 (17.7)	83 (17.5)	89 (22.3)	55 (13.3)	123 (20.2)	104 (15.3)
① 부모에게 순종함	99 (7.7)	34 (7.2)	41 (10.3)	24 (5.8)	42 (6.9)	57 (8.4)
② 예의바름	66 (5.1)	27 (5.7)	23 (5.8)	16 (3.9)	48 (7.9)	18 (2.7)
③ 부모를 공경함	34 (2.6)	9 (1.9)	17 (4.3)	8 (1.9)	18 (3.0)	16 (2.4)
④ 부모를 이해해줌	28 (2.2)	13 (2.7)	8 (2.0)	7 (1.7)	15 (2.5)	13 (1.9)
4. 성실함	118 (9.2)	41 (8.7)	44 (11.0)	33 (8.0)	45 (7.4)	73 (10.8)
① 스스로 잘함	57 (4.4)	28 (5.9)	19 (4.8)	10 (2.4)	11 (1.8)	46 (6.8)
② 성실함	39 (3.0)	10 (2.1)	15 (3.8)	14 (3.4)	21 (3.5)	18 (2.7)
③ 노력함	22 (1.7)	3 (.6)	10 (2.5)	9 (2.2)	13 (2.1)	9 (1.3)
5. 애교 부림	101 (7.9)	27 (5.7)	30 (7.5)	44 (10.7)	65 (10.7)	36 (5.3)
① 애교 부림	51 (4.0)	17 (3.6)	14 (3.5)	20 (4.8)	30 (4.9)	21 (3.1)
② 대화, 편지	39 (3.0)	6 (1.3)	11 (2.8)	22 (5.3)	26 (4.3)	13 (1.9)
③ 친근한 태도	11 (.9)	4 (.8)	5 (1.3)	2 (.5)	9 (1.5)	2 (.3)
6. 학업 충실	100 (7.8)	32 (6.8)	25 (6.3)	43 (10.4)	54 (8.9)	46 (6.8)
① 공부를 열심히 함	55 (4.3)	19 (4.0)	19 (4.8)	17 (4.1)	32 (5.3)	23 (3.4)
② 학업충실	37 (2.9)	9 (1.9)	5 (1.3)	23 (5.6)	18 (3.0)	19 (2.8)
③ 공부를 잘 함	8 (.6)	4 (.8)	1 (.3)	3 (.7)	4 (.7)	4 (.6)
7. 잘 성장함	69 (5.4)	24 (5.1)	16 (4.0)	29 (7.0)	44 (7.2)	25 (3.7)
① 올바른 행동	47 (3.7)	16 (3.4)	9 (2.3)	22 (5.3)	31 (5.1)	16 (2.4)
② 착함	12 (.9)	3 (.6)	5 (1.3)	4 (1.0)	7 (1.2)	5 (.7)
③ 건강하게 잘 자람	10 (.8)	5 (1.1)	2 (.5)	3 (.7)	6 (1.0)	4 (.6)
8. 기타	35 (2.7)	8 (1.7)	5 (1.3)	22 (5.3)	24 (3.9)	11 (1.6)
① 효도행동 안함	25 (1.9)	5 (1.1)	4 (1.0)	16 (3.9)	19 (3.1)	6 (.9)
② 기타	10 (.8)	3 (.6)	1 (.3)	6 (1.5)	5 (.8)	5 (.7)
계	1286 (100.0)	473 (100.0)	400 (100.0)	413 (100.0)	608 (100.0)	678 (100.0)

표 4.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관련 언어 표현

	전체(%)	자녀발달단계별			부모별	
		초 부모(%)	중 부모(%)	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
1. 다정한 표현	342 (28.1)	119 (25.9)	106 (27.7)	117 (31.4)	153 (26.6)	189 (29.6)
① 사랑해요	243 (20.0)	87 (19.0)	71 (18.5)	85 (22.8)	104 (18.1)	139 (21.8)
② 기분 좋은 말	34 (2.8)	14 (3.1)	11 (2.9)	9 (2.4)	17 (3.0)	17 (2.7)
③ 대화, 편지	26 (2.1)	5 (1.1)	12 (3.1)	9 (2.4)	13 (2.3)	13 (2.0)
④ 다정한 말	20 (1.6)	5 (1.1)	5 (1.3)	10 (2.7)	7 (1.2)	13 (2.0)
⑤ 애교스러운 말	19 (1.6)	8 (1.7)	7 (1.8)	4 (1.1)	12 (2.1)	7 (1.1)
2. 격려의 표현	216 (17.8)	86 (18.7)	63 (16.4)	67 (18.0)	100 (17.4)	116 (18.2)
① 힘드시죠	97 (8.0)	41 (8.9)	32 (8.4)	24 (6.4)	45 (7.8)	52 (8.1)
② 힘내세요(격려)	53 (4.4)	11 (2.4)	16 (4.2)	26 (7.0)	34 (5.9)	19 (3.0)
③ 위로하는 말	30 (2.5)	15 (3.3)	8 (2.1)	7 (1.9)	9 (1.6)	21 (3.3)
④ 안마해드릴게요	20 (1.6)	9 (2.0)	4 (1.0)	7 (1.9)	8 (1.4)	12 (1.9)
⑤ 걱정해주는 말	16 (1.3)	10 (2.2)	3 (.8)	3 (.8)	4 (.7)	12 (1.9)
3. 예의바른 표현	188 (15.5)	77 (16.8)	70 (18.3)	41 (11.0)	104 (18.1)	84 (13.1)
① 존댓말, 고운말, 바른말	114 (9.4)	44 (9.6)	47 (12.3)	23 (6.2)	58 (10.1)	56 (8.8)
② 인사 잘 함	47 (3.9)	20 (4.4)	13 (3.4)	14 (3.8)	34 (5.9)	13 (2.0)
③ 공경하는 말	14 (1.2)	6 (1.3)	6 (1.6)	2 (.5)	7 (1.2)	7 (1.1)
④ 예의바른 말	13 (1.1)	7 (1.5)	4 (1.0)	2 (.5)	5 (.9)	8 (1.3)
4.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	79 (6.5)	27 (5.9)	19 (5.0)	33 (8.8)	44 (7.6)	35 (5.5)
① 공부 잘 할게요	55 (4.5)	22 (4.8)	13 (3.4)	20 (5.4)	30 (5.2)	25 (3.9)
② 열심히 할게요	24 (2.0)	5 (1.1)	6 (1.6)	13 (3.5)	14 (2.4)	10 (1.6)
5. 건강하라는 표현	67 (5.5)	28 (6.1)	26 (6.8)	13 (3.5)	41 (7.1)	26 (4.1)
① 건강하세요	38 (3.1)	13 (2.8)	16 (4.2)	9 (2.4)	17 (3.0)	21 (3.3)
② 건강조심하세요	15 (1.2)	6 (1.3)	5 (1.3)	4 (1.1)	11 (1.9)	4 (.6)
③ 금주, 금연하세요	14 (1.2)	9 (2.0)	5 (1.3)	-	13 (2.3)	1 (.2)
6. 순종하는 표현	64 (5.3)	21 (4.6)	37 (9.7)	6 (1.6)	35 (6.1)	29 (4.5)
① 순종하는 말	29 (2.4)	7 (1.5)	18 (4.7)	4 (1.1)	16 (2.8)	13 (2.0)
② 공손한 말	26 (2.1)	11 (2.4)	14 (3.7)	1 (.3)	13 (2.3)	13 (2.0)
③ 부모를 이해하는 말	9 (.7)	3 (.7)	5 (1.3)	1 (.3)	6 (1.0)	3 (.5)
7. 도와 드리겠다는 표현	64 (5.3)	31 (6.8)	19 (5.0)	14 (3.8)	9 (1.6)	55 (8.6)
① 도와드릴게요	37 (3.0)	20 (4.4)	9 (2.3)	8 (2.1)	5 (.9)	32 (5.0)
② 제가 할게요	20 (1.6)	7 (1.5)	7 (1.8)	6 (1.6)	3 (.5)	17 (2.7)
③ 집안일 도움게요	7 (.6)	4 (.9)	3 (.8)	-	1 (.2)	6 (.9)
8. 감사의 표현	61 (5.0)	26 (5.7)	15 (3.9)	20 (5.4)	22 (3.8)	39 (6.1)
① 감사합니다	37 (3.0)	15 (3.3)	10 (2.6)	12 (3.2)	16 (2.8)	21 (3.3)
② 고맙습니다	24 (2.0)	11 (2.4)	5 (1.3)	8 (2.1)	6 (1.0)	18 (2.8)
9. 말로 표현하지 않음	57 (4.7)	15 (3.3)	8 (2.1)	34 (9.1)	32 (5.6)	25 (3.9)
① 말 안함	50 (4.1)	10 (2.2)	8 (2.1)	32 (8.6)	28 (4.9)	22 (3.4)
② 말없이 실천	7 (.6)	5 (1.1)	-	2 (.5)	4 (.7)	3 (.5)
10. 기대해 달라는 표현	46 (3.8)	18 (3.9)	16 (4.2)	12 (3.2)	17 (3.0)	29 (4.5)
① 커서 효도할게요	21 (1.7)	7 (1.5)	7 (1.8)	7 (1.9)	4 (.7)	17 (2.7)
② 앞으로 잘 할게요	18 (1.5)	10 (2.2)	5 (1.3)	3 (.8)	9 (1.6)	9 (1.4)
③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7 (.6)	1 (.2)	4 (1.0)	2 (.5)	4 (.7)	3 (.5)
11. 기타	31 (2.6)	11 (2.4)	4 (1.0)	16 (4.3)	19 (3.3)	12 (1.9)
계	1215 (100.0)	459 (100.0)	383 (100.0)	373 (100.0)	576 (100.0)	639 (100.0)

20%를 넘었으나, 부모를 직접 도와주는 것을 효도로 생각하는 아버지들은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집안일 등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때 효도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40%에 가까웠고, 부모를 아껴줌과 순종 범주에 응답한 어머니들은 15~20%이었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자녀가 안마와 같은 아껴드리는 행동을 해 드리고 순종할 때, 어머니들은 자녀가 집안일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때 효도 행동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표 4는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관련 언어 표현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반응 결과를 보면, 다정한 표현 범주가 거의 30%에 가까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격려의 표현과 예의바른 표현이 모두 15~20% 사이의 비슷한 반응율을 보인다. 이외에도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 건강하라는 표현, 순종하는 표현, 도와드리겠다는 표현, 감사의 표현이 모두 5~10% 사이의 대표적인 반응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5%에 약간 못 미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음, 기대해 달라는 표현이 의미 있는 범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에, 자녀가 사랑해요와 같이 부모에게 다정한 표현을 할 때 10명 중에서 3명 정도는 효도의 언어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이외에 힘드시죠와 같은 격려의 표현을 하거나, 존댓말 등 예의바른 표현을 할 때 효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각각 10명 중에서 약 2명 가까이 되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의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을 한다든가, 건강을 염려해 주는 표현 또는 순종하는 표현을 할 때에도 효도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자녀발달단계별 분석 결과를 보면, 초·중·고등학생 부모 모두 다정한 표현 범주에 대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고등학생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다정한 표현에 대한 반응율이 더욱 높았다. 그리고 중학생 부모들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부모보다도 격려의 표현보다 예의바른 표현에 대한 반응율이 높았다. 그러나 세 집단 모두 다정한 표현 범주에 대한 반응이 가장 높은 점에서는 일치하였다.

부모별로는 두 집단 모두 다정한 표현 범주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약 30%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다. 아버지 집단에서는 예의바른 표현이 두 번째 범주로, 격려의 표현이 세 번째 범주로 모두 20%에 가까운 반응율을 보였다. 어머니 집단에서는 격려의 표현이 두 번째 범주이고, 예의바른 표현이 세 번째 범주로 나타났으나, 두 범주 간에 반응율이 모두 10~20% 사이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집단에서 예의바른 표현을 효도관련 언어 표현으로 인식하는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5는 부모들이 가장 감동하는 자녀의 효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순종 범주가 21.1%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부모를 아껴줌, 성실함, 학업충실, 다정한 말의 범주가 모두 10~20% 사이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이외에 잘 성장함과 정다운 행동이라는 범주도 5~10% 사이의 반응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할 때, 부모 10명 중에 2명 이상이 감동하였다. 이외에도 부모를 아껴준다든가, 성실함 및 학업에 대한 충실이 부모를 감

표 5. 가장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

	전체(%)	자녀발달단계별			부모별	
		초 부모(%)	중 부모(%)	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
1. 순종	261 (21.1)	110 (23.7)	87 (22.4)	64 (16.6)	131 (22.7)	130 (19.7)
① 부모마음 헤아림	147 (11.9)	65 (14.0)	47 (12.1)	35 (9.1)	68 (11.8)	79 (12.0)
② 부모에게 순종함	70 (5.6)	19 (4.1)	30 (7.7)	21 (5.4)	36 (6.2)	34 (5.1)
③ 예의바름	22 (1.8)	14 (3.0)	6 (1.5)	2 (.5)	15 (2.6)	7 (1.1)
④ 부모에게 감사함	15 (1.2)	9 (1.9)	3 (.8)	3 (.8)	8 (1.4)	7 (1.1)
⑤ 부모존경	7 (.6)	3 (.6)	1 (.3)	3 (.8)	4 (.7)	3 (.5)
2. 부모를 아껴줌	239 (19.3)	88 (18.9)	86 (22.2)	65 (16.8)	93 (16.1)	146 (22.1)
① 부모를 챙겨줌	91 (7.3)	37 (8.0)	34 (8.8)	20 (5.2)	34 (5.9)	57 (8.6)
② 부모를 도와줌	52 (4.2)	20 (4.3)	18 (4.6)	14 (3.6)	13 (2.2)	39 (5.9)
③ 기념일 챙겨줌	39 (3.1)	10 (2.2)	17 (4.4)	12 (3.1)	17 (2.9)	22 (3.3)
④ 가족에 대한 배려	26 (2.1)	8 (1.7)	11 (2.8)	7 (1.8)	15 (2.6)	11 (1.7)
⑤ 안마해줌	22 (1.8)	7 (1.5)	6 (1.5)	9 (2.3)	10 (1.7)	12 (1.8)
⑥ 형제간 우애있음	9 (.7)	6 (1.3)	-	3 (.8)	4 (.7)	5 (.8)
3. 성실함	200 (16.1)	74 (15.9)	69 (17.8)	57 (14.8)	88 (15.2)	112 (16.9)
① 스스로 알아서 잘 함	105 (8.5)	45 (9.7)	34 (8.8)	26 (6.7)	42 (7.3)	63 (9.5)
② 노력함	50 (4.0)	12 (2.6)	17 (4.4)	21 (5.4)	25 (4.3)	25 (3.8)
③ 성실한 태도	45 (3.6)	17 (3.7)	18 (4.6)	10 (2.6)	21 (3.6)	24 (3.6)
4. 학업충실	173 (14.0)	52 (11.2)	53 (13.7)	68 (17.6)	100 (17.3)	73 (11.0)
① 공부를 잘 함	64 (5.2)	17 (3.7)	26 (6.7)	21 (5.4)	41 (7.1)	23 (3.5)
② 공부를 열심히 함	58 (4.7)	24 (5.2)	14 (3.6)	20 (5.2)	33 (5.7)	25 (3.8)
③ 학업충실	37 (3.0)	7 (1.5)	8 (2.1)	22 (5.7)	18 (3.1)	19 (2.9)
④ 공부를 스스로 잘 함	14 (1.1)	4 (.9)	5 (1.3)	5 (1.3)	8 (1.4)	6 (.9)
5. 다정한 말	147 (11.9)	63 (13.5)	43 (11.1)	41 (10.6)	60 (10.4)	87 (13.2)
① 다정한 말	50 (4.0)	23 (4.9)	11 (2.8)	16 (4.1)	20 (3.5)	30 (4.5)
② 대화, 편지, 문자	48 (3.9)	19 (4.1)	12 (3.1)	17 (4.4)	21 (3.6)	27 (4.1)
③ 위로의 말	35 (2.8)	15 (3.2)	14 (3.6)	6 (1.6)	13 (2.2)	22 (3.3)
④ 사랑한다는 말	14 (1.1)	6 (1.3)	6 (1.5)	2 (.5)	6 (1.0)	8 (1.2)
6. 잘 성장함	99 (8.0)	39 (8.4)	30 (7.7)	30 (7.8)	47 (8.1)	52 (7.9)
① 건강하게 잘 자람	50 (4.0)	20 (4.3)	16 (4.1)	14 (3.6)	23 (4.0)	27 (4.1)
② 올바른 행동	18 (1.5)	7 (1.5)	6 (1.5)	5 (1.3)	8 (1.4)	10 (1.5)
③ 자랑스러움	16 (1.3)	6 (1.3)	6 (1.5)	4 (1.0)	11 (1.9)	5 (.8)
④ 어른스러움	15 (1.2)	6 (1.3)	2 (.5)	7 (1.8)	5 (.9)	10 (1.5)
7. 정다운 행동	88 (7.1)	31 (6.7)	17 (4.4)	40 (10.4)	39 (6.7)	49 (7.4)
① 감동시키는 행동	45 (3.6)	14 (3.0)	11 (2.8)	20 (5.2)	18 (3.1)	27 (4.1)
② 기분 좋게 해줌	22 (1.8)	9 (1.9)	4 (1.0)	9 (2.3)	10 (1.7)	12 (1.8)
③ 애교, 친근한 행동	12 (1.0)	6 (1.3)	1 (.3)	5 (1.3)	4 (.7)	8 (1.2)
④ 함께 있음	9 (.7)	2 (.4)	1 (.3)	6 (1.6)	7 (1.2)	2 (.3)
8. 기타	32 (2.6)	8 (1.7)	3 (.8)	21 (5.4)	20 (3.5)	12 (1.8)
① 언제나 감동임	17 (1.4)	2 (.4)	2 (.5)	13 (3.4)	9 (1.6)	8 (1.2)
② 기타	15 (1.2)	6 (1.3)	1 (.3)	8 (2.1)	11 (1.9)	4 (.6)
계	1239 (100.0)	465 (100.0)	388 (100.0)	386 (100.0)	578 (100.0)	661 (100.0)

동시키는 효도였다.

자녀발달단계별로 보면, 초등학교 부모와 중학교 부모는 20% 이상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순종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부모를 아껴줌, 성실함의 순서를 보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부모는 학업충실 범주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 초 중학생의 부모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 부모를 아껴줌, 순종, 성실함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별히 학업충실 범주는 초등학교 부모보다는 중학교 부모가, 중학교 부모보다는 고등학교 부모가 더욱 높은 반응율을 나타냄으로써,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점차 성장할수록 학업충실을 가장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로 인해, 자녀가 성장하여 대학교 입학시험을 칠 연령으로 가까워질수록 자녀의 학업충실이 부모에게는 감동적인 효도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한편 초등학교 부모와 중학교 부모에 비해 고등학교 부모는 순종에 대한 지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부모와 중학교 부모는 학업충실보다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훨씬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 부모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 감동적인 효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고등학교 부모는 자녀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인 효도로 받아들여지고,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부모는 자녀의 순종을 가장 감동적인 효도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를 아껴줌,

성실함, 학업충실 등이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감동하는 효도 행동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부모별로 가장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집단은 순종이 20%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학업충실, 부모를 아껴줌, 성실함, 다정한 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어머니 집단은 부모를 아껴줌이 20%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순종, 성실함, 다정한 말, 학업충실의 순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10% 이상의 반응을 나타낸 범주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자녀가 순종할 때, 어머니들은 자녀가 부모를 챙겨주고 아껴줄 때 가장 감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를 보였다.

2.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가 표 6이다. 전체 집단의 반응율을 보면, 인간의 도리 범주가 30%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올바른 인간 형성 범주가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된 범주와 부모의 희생에 대한 보답, 및 가정화목 범주가 모두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였다. 혈연관계 범주도 5~10%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전체(%)	자녀발달단계별			부모별	
		초 부모(%)	중 부모(%)	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
1. 인간의 도리	390(32.1)	148(33.0)	101(26.5)	141(36.6)	191(33.5)	199(30.9)
① 기본도리	126(10.4)	54(12.0)	33(8.7)	39(10.1)	62(10.9)	64(9.9)
② 인간의 도리	114(9.4)	41(9.1)	36(9.4)	37(9.6)	48(8.4)	66(10.2)
③ 당연히 해야 함	44(3.6)	6(1.3)	11(2.9)	27(7.0)	21(3.7)	23(3.6)
④ 가정의 기본	33(2.7)	14(3.1)	12(3.1)	7(1.8)	19(3.3)	14(2.2)
⑤ 기본예절	32(2.6)	12(2.7)	4(1.0)	16(4.2)	16(2.8)	16(2.5)
⑥ 중요한 가치	15(1.2)	9(2.0)	2(0.5)	4(1.0)	8(1.4)	7(1.1)
⑦ 전통가치	15(1.2)	6(1.3)	-	9(2.3)	8(1.4)	7(1.1)
⑧ 사회의 기본	11(0.9)	6(1.3)	3(0.8)	2(0.5)	9(1.6)	2(0.3)
2. 올바른 인간 형성	269(22.1)	112(24.9)	95(24.9)	62(16.1)	117(20.5)	152(23.6)
① 올바른 인격 형성	115(9.5)	40(8.9)	47(12.3)	28(7.3)	51(8.9)	64(9.9)
② 윗사람에 대한 공경	71(5.8)	36(8.0)	23(6.0)	12(3.1)	32(5.6)	39(6.0)
③ 인성교육	56(4.6)	20(4.5)	17(4.5)	19(4.9)	23(4.0)	33(5.1)
④ 배려하는 마음	27(2.2)	16(3.6)	8(2.1)	3(0.8)	11(1.9)	16(2.5)
3. 자녀에게 도움이 됨	153(12.6)	63(14.0)	46(12.1)	44(11.4)	68(11.9)	85(13.2)
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됨	65(5.3)	22(4.9)	20(5.2)	23(6.0)	25(4.4)	40(6.2)
② 자녀교육	50(4.1)	23(5.1)	16(4.2)	11(2.9)	19(3.3)	31(4.8)
③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므로	20(1.6)	7(1.6)	7(1.8)	6(1.6)	14(2.5)	6(0.9)
④ 건전한 사회 조성	18(1.5)	11(2.4)	3(0.8)	4(1.0)	10(1.8)	8(1.2)
4. 부모의 회생에 대한 보답	135(11.1)	51(11.4)	44(11.5)	40(10.4)	60(10.5)	75(11.6)
① 부모공경	32(2.6)	17(3.8)	9(2.4)	6(1.6)	14(2.5)	18(2.8)
② 부모의 회생(낳아준/기워준)	26(2.1)	11(2.4)	9(2.4)	6(1.6)	10(1.8)	16(2.5)
③ 사랑의 표현	25(2.1)	6(1.3)	9(2.4)	10(2.6)	13(2.3)	12(1.9)
④ 부모에 대한 감사	23(1.9)	7(1.6)	10(2.6)	6(1.6)	10(1.8)	13(2.0)
⑤ 부모 마음 이해	15(1.2)	3(0.7)	6(1.6)	6(1.6)	6(1.1)	9(1.4)
⑥ 부모에게 힘이 됨	14(1.2)	7(1.6)	1(0.3)	6(1.6)	7(1.2)	7(1.1)
5. 가정화목	135(11.1)	41(9.1)	56(14.7)	38(9.9)	63(11.1)	72(11.2)
① 가정화목을 위해	91(7.5)	28(6.2)	35(9.2)	28(7.3)	41(7.2)	50(7.8)
② 가족사랑	27(2.2)	7(1.6)	14(3.7)	6(1.6)	12(2.1)	15(2.3)
③ 가족유대형성	17(1.4)	6(1.3)	7(1.8)	4(1.0)	10(1.8)	7(1.1)
6. 혈연관계	77(6.3)	20(4.5)	22(5.8)	35(9.1)	42(7.4)	35(5.4)
① 가족이므로	36(3.0)	11(2.4)	12(3.1)	13(3.4)	20(3.5)	16(2.5)
② 부모자녀관계이므로	29(2.4)	8(1.8)	5(1.3)	16(4.2)	15(2.6)	14(2.2)
③ 자녀이기 때문	12(1.0)	1(0.2)	5(1.3)	6(1.6)	7(1.2)	5(0.8)
7. 기타	56(4.6)	14(3.1)	17(4.5)	25(6.5)	29(5.1)	27(4.2)
① 노후를 위해	16(1.3)	2(0.4)	6(1.6)	8(2.1)	7(1.2)	9(1.4)
② 중요하지 않음	11(0.9)	-	8(2.1)	3(0.8)	6(1.1)	5(0.8)
③ 모르겠음	7(0.6)	2(0.4)	-	5(1.3)	4(0.7)	3(0.5)
④ 기타	22(1.8)	10(2.2)	3(0.8)	9(2.3)	12(2.1)	10(1.6)
계	1215(100.0)	449(100.0)	381(100.0)	385(100.0)	570(100.0)	645(100.0)

자녀발달단계별로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 부모 모두 인간의 도리 범주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세 집단 모두 두 번째로는 올바른 인간 형성 범주를 지적하는 점에서도 일치하였다. 자녀발달단계별로 보았을 때 중학생 부모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부모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중학생 부모가 가정의 화목 범주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음으로써, 자녀가 효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가정의 화목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별로 보았을 때 아버지 집단이나 어머니 집단 모두 인간의 도리 범주에 대해 30% 이상의 높은 반응율로 첫 번째 순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올바른 인간 형성 범주에 대해서도 모두 20% 이상의 비율을 보임으로써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됨, 부모의 회생에 대한 보답, 가정화목 범주에 대해,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10~15% 사이의 비슷한 반응율을 보이는 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집단 모두 같았다. 그러므로 자녀가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있어, 자녀발달단계별로나 부모별로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불효와 자녀의 불효로 인한 심리적 영향

표 7과 표 8은 자녀의 불효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무엇을 자녀의 불효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효도하

지 않았을 때 부모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표 7을 보면, 전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음 범주가 거의 5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며 가장 대표적이었다. 그 다음으로 나쁜 행동 범주 및 기대에 미치지 못함 범주, 부모를 무시함 범주가 모두 각각 1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마음을 아프게 함과 불성실함 범주가 각각 5~10%의 반응율을 각각 보였고, 그 다음으로 학업 소홀 및 불효한 적 없음 범주가 5% 미만이었지만 의미있는 범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말대꾸를 한다든가 반항하고 제멋대로하며 고집부리고 짜증낼 때, 이러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부모에 대한 불효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자녀발달단계별로 초, 중, 고등학생 부모 모두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중학생 부모는 5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보였으며,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의 부모보다 불순종을 불효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초 중 고등학생 부모 집단 모두 순종하지 않음에 반응율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말 안 들음을 세 집단 모두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부모별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모두 순종하지 않음 범주에 대해 45% 내외의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모두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불효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한편 자녀가 효도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

표 7.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불효

	전체(%)	자녀발달단계별			부모별	
		초 부모(%)	중 부모(%)	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
1. 순종하지 않음	544 (45.0)	202 (44.9)	198 (51.8)	144 (38.1)	253 (44.9)	291 (45.0)
① 말 안 들음	237 (19.6)	91 (20.2)	87 (22.8)	59 (15.6)	129 (22.9)	108 (16.7)
② 말대꾸	69 (5.7)	24 (5.3)	29 (7.6)	16 (4.2)	20 (3.5)	49 (7.6)
③ 반항	68 (5.6)	27 (6.0)	27 (7.1)	14 (3.7)	23 (4.1)	45 (7.0)
④ 제멋대로 함	61 (5.0)	27 (6.0)	20 (5.2)	14 (3.7)	31 (5.5)	30 (4.6)
⑤ 대들음	52 (4.3)	13 (2.9)	13 (3.4)	26 (6.9)	24 (4.3)	28 (4.3)
⑥ 짜증냄	29 (2.4)	8 (1.8)	13 (3.4)	8 (2.1)	15 (2.7)	14 (2.2)
⑦ 고집 부림	28 (2.3)	12 (2.7)	9 (2.4)	7 (1.9)	11 (2.0)	17 (2.6)
2. 나쁜 행동	128 (10.6)	43 (9.6)	41 (10.7)	44 (11.6)	66 (11.7)	62 (9.6)
① 거짓말	73 (6.0)	26 (5.8)	24 (6.3)	23 (6.1)	39 (6.9)	34 (5.3)
② 나쁜 짓	20 (1.7)	5 (1.1)	8 (2.1)	7 (1.9)	8 (1.4)	12 (1.9)
③ 바르지 못한 행동	16 (1.3)	8 (1.8)	4 (1.0)	4 (1.1)	9 (1.6)	7 (1.1)
④ 일탈행동	10 (.8)	1 (.2)	3 (.8)	6 (1.6)	6 (1.1)	4 (.6)
⑤ 학생신분에서 벗어난 행동	9 (.7)	3 (.7)	2 (.5)	4 (1.1)	4 (.7)	5 (.8)
3. 기대에 미치지 못함	124 (10.2)	61 (13.6)	26 (6.8)	37 (9.8)	42 (7.4)	82 (12.7)
① 이기적임	40 (3.3)	28 (6.2)	6 (1.6)	6 (1.6)	14 (2.5)	26 (4.0)
② 건강하지 못함	37 (3.1)	11 (2.4)	10 (2.6)	16 (4.2)	16 (2.8)	21 (3.3)
③ 기대에 어긋남	25 (2.1)	8 (1.8)	6 (1.6)	11 (2.9)	7 (1.2)	18 (2.8)
④ 형제간 다툼	22 (1.8)	14 (3.1)	4 (1.0)	4 (1.1)	5 (.9)	17 (2.6)
4. 부모를 무시함	122 (10.1)	41 (9.1)	44 (11.5)	37 (9.8)	60 (10.6)	62 (9.6)
① 예의 없음	59 (4.9)	26 (5.8)	15 (3.9)	18 (4.8)	31 (5.5)	28 (4.3)
③ 부모 무시, 비난	38 (3.1)	13 (2.9)	16 (4.2)	9 (2.4)	16 (2.8)	22 (3.4)
④ 무관심, 대화단절	25 (2.1)	2 (.4)	13 (3.4)	10 (2.6)	13 (2.3)	12 (1.9)
5. 마음을 아프게 함	95 (7.9)	29 (6.4)	23 (6.0)	43 (11.4)	39 (6.9)	56 (8.7)
① 부모마음 이해 못함	37 (3.1)	8 (1.8)	13 (3.4)	16 (4.2)	14 (2.5)	23 (3.6)
② 속상하게 함	23 (1.9)	5 (1.1)	3 (.8)	15 (4.0)	9 (1.6)	14 (2.2)
③ 마음을 아프게 함	22 (1.8)	12 (2.7)	3 (.8)	7 (1.9)	10 (1.8)	12 (1.9)
④ 걱정 끼침	13 (1.1)	4 (.9)	4 (1.0)	5 (1.3)	6 (1.1)	7 (1.1)
6. 불성실함	74 (6.1)	28 (6.2)	23 (6.0)	23 (6.1)	35 (6.2)	39 (6.0)
① 노력하지 않음	18 (1.5)	7 (1.6)	7 (1.8)	4 (1.1)	8 (1.4)	10 (1.5)
② 스스로 못함	15 (1.2)	7 (1.6)	7 (1.8)	1 (.3)	9 (1.6)	6 (.9)
③ 성실하지 못함	14 (1.2)	5 (1.1)	1 (.3)	8 (2.1)	5 (.9)	9 (1.4)
④ 게으름	14 (1.2)	3 (.7)	4 (1.0)	7 (1.9)	4 (.7)	10 (1.5)
⑤ 약속을 지키지 않음	13 (1.1)	6 (1.3)	4 (1.0)	3 (.8)	9 (1.6)	4 (.6)
7. 학업소홀	54 (4.5)	21 (4.7)	15 (3.9)	18 (4.8)	31 (5.5)	23 (3.6)
① 공부안하고 놀기	37 (3.1)	13 (2.9)	8 (2.1)	16 (4.2)	20 (3.5)	17 (2.6)
②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	12 (1.0)	7 (1.6)	5 (1.3)	-	6 (1.1)	6 (.9)
③ 성적 하락	5 (.4)	1 (.2)	2 (.5)	2 (.5)	5 (.9)	-
8. 불효한 적 없음	46 (3.8)	11 (2.4)	11 (2.9)	24 (6.3)	22 (3.9)	24 (3.7)
① 불효라고 생각한 적 없음	29 (2.4)	8 (1.8)	8 (2.1)	13 (3.4)	14 (2.5)	15 (2.3)
② 잘 함	17 (1.4)	3 (.7)	3 (.8)	11 (2.9)	8 (1.4)	9 (1.4)
9. 기타	23 (1.9)	14 (3.1)	1 (.3)	8 (2.1)	16 (2.8)	7 (1.1)
계	1210 (100.0)	450 (100.0)	382 (100.0)	378 (100.0)	564 (100.0)	646 (100.0)

표 8.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

	전체(%)	자녀발달단계별			부모별	
		초 부모(%)	중 부모(%)	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
1. 서운함	632 (51.4)	215 (47.7)	210 (54.4)	207 (52.8)	275 (47.9)	357 (54.5)
① 서운함	197 (16.0)	70 (15.5)	71 (18.4)	56 (14.3)	83 (14.5)	114 (17.4)
② 섭섭함	162 (13.2)	52 (11.5)	55 (14.2)	55 (14.0)	79 (13.8)	83 (12.7)
③ 속상함	152 (12.4)	56 (12.4)	51 (13.2)	45 (11.5)	64 (11.1)	88 (13.4)
④ 슬픔	47 (3.8)	12 (2.7)	14 (3.6)	21 (5.4)	22 (3.8)	25 (3.8)
⑤ 마음이 아픔	39 (3.2)	14 (3.1)	10 (2.6)	15 (3.8)	15 (2.6)	24 (3.7)
⑥ 허전함	24 (2.0)	9 (2.0)	6 (1.6)	9 (2.3)	8 (1.4)	16 (2.4)
⑦ 쓸쓸함	11 (0.9)	2 (0.4)	3 (0.8)	6 (1.5)	4 (0.7)	7 (1.1)
2. 자기반성	161 (13.1)	73 (16.2)	58 (15.0)	30 (7.7)	86 (15.0)	75 (11.5)
① 자기반성	54 (4.4)	30 (6.7)	17 (4.4)	7 (1.8)	27 (4.7)	27 (4.1)
② 자녀에 대한 걱정	43 (3.5)	14 (3.1)	19 (4.9)	10 (2.6)	21 (3.7)	22 (3.4)
③ 잘못된 가정교육	33 (2.7)	13 (2.9)	14 (3.6)	6 (1.5)	21 (3.7)	12 (1.8)
④ 교육이 필요함	31 (2.5)	16 (3.5)	8 (2.1)	7 (1.8)	17 (3.0)	14 (2.1)
3. 패섬함	118 (9.6)	49 (10.9)	28 (7.3)	41 (10.5)	62 (10.8)	56 (8.5)
① 자녀에 대한 미움	45 (3.7)	19 (4.2)	12 (3.1)	14 (3.6)	23 (4.0)	22 (3.4)
② 화가 남	27 (2.2)	8 (1.8)	6 (1.6)	13 (3.3)	14 (2.4)	13 (2.0)
③ 패섬함	20 (1.6)	10 (2.2)	6 (1.6)	4 (1.0)	10 (1.7)	10 (1.5)
④ 자녀에 대한 비난	18 (1.5)	7 (1.6)	3 (0.8)	8 (2.0)	12 (2.1)	6 (0.9)
⑤ 배신감	8 (0.7)	5 (1.1)	1 (0.3)	2 (0.5)	3 (0.5)	5 (0.8)
4. 자녀에 대한 이해	109 (8.9)	38 (8.4)	37 (9.6)	34 (8.7)	48 (8.4)	61 (9.3)
① 철이 없음	37 (3.0)	15 (3.3)	17 (4.4)	5 (1.3)	16 (2.8)	21 (3.2)
② 그냥 이해함	34 (2.8)	11 (2.4)	9 (2.3)	14 (3.6)	15 (2.6)	19 (2.9)
③ 앞으로 잘 할 것이라 기대	25 (2.0)	8 (1.8)	5 (1.3)	12 (3.1)	12 (2.1)	13 (2.0)
④ 이해하려고 노력함	13 (1.1)	4 (0.9)	6 (1.6)	3 (0.8)	5 (0.9)	8 (1.2)
5. 실망함	95 (7.7)	38 (8.4)	26 (6.7)	31 (7.9)	44 (7.7)	51 (7.8)
① 허무함	27 (2.2)	13 (2.9)	7 (1.8)	7 (1.8)	12 (2.1)	15 (2.3)
② 낳은 것을 후회함	26 (2.1)	13 (2.9)	4 (1.0)	9 (2.3)	9 (1.6)	17 (2.6)
③ 실망스러움	25 (2.0)	9 (2.0)	9 (2.3)	7 (1.8)	13 (2.3)	12 (1.8)
④ 답답함	17 (1.4)	3 (0.7)	6 (1.6)	8 (2.0)	10 (1.7)	7 (1.1)
6. 담담함	55 (4.5)	20 (4.4)	12 (3.1)	23 (5.9)	25 (4.4)	30 (4.6)
① 아무렇지 않음	22 (1.8)	9 (2.0)	5 (1.3)	8 (2.0)	12 (2.1)	10 (1.5)
② 별 생각 없음	21 (1.7)	6 (1.3)	4 (1.0)	11 (2.8)	10 (1.7)	11 (1.7)
③ 기대하지 않는다	12 (1.0)	5 (1.1)	3 (0.8)	4 (1.0)	3 (0.5)	9 (1.4)
7. 자녀의 효도에 만족함	34 (2.8)	10 (2.2)	8 (2.1)	16 (4.1)	22 (3.8)	12 (1.8)
8. 기타	25 (2.0)	8 (1.8)	7 (1.8)	10 (2.6)	12 (2.1)	13 (2.0)
① 노후가 걱정됨	10 (0.8)	5 (1.1)	3 (0.8)	2 (0.5)	5 (0.9)	5 (0.8)
② 기타	15 (1.2)	3 (0.7)	4 (1.0)	8 (2.0)	7 (1.2)	8 (1.2)
계	1229 (100.0)	451 (100.0)	386 (100.0)	392 (100.0)	574 (100.0)	655 (100.0)

을 정리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반응 경향을 보면 서운함 범주에 대해 과반수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기반성 범주가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패essim, 자녀에 대한 이해, 실망함 범주가 5~10%를 나타내었다. 이외에 담담함, 자녀의 효도에 만족함 범주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을 때 부모들 2명 중에서 1명은 서운한 감정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서운함이란 섭섭함, 속상함, 슬픔, 마음이 아픔 등의 개념들을 포함하였다.

자녀발달단계별 분석 결과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부모 집단 모두 서운함 범주에 대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부모의 경우는 50% 미만이고, 중학생 및 고등학교 부모는 50% 이상으로서, 초등학교 부모보다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을 때 섭섭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현저한 범주로서 초·중·고등학교 부모는 자기반성 범주를 지적하였고, 각각 15% 내외의 반응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부모는 패essim 범주에 대해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을 때 초·중·고등학교 부모는 자기반성을 더 많이 하는 편이라면, 고등학교 부모는 패essim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부모별로는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 모두 50% 내외로 다른 어떠한 응답보다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2명 중 1명 정도는 자녀가 효도하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자녀 효도, 자녀 양육효능감, 가정경제수준의 영향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자녀 효도와 자녀 양육효능감 및 가정경제수준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을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표 9를 보면 아버지 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자녀양육효능감과 $r=.58$ 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자녀 효도도 가정생활만족도와 $r=.46$ 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정경제수준도 가정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자녀양육효능감이나 자녀 효도와의 상관계수보다는 낮았다.

자녀 효도가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GFI=.997$, $NFI=.991$, $RMR=.028$ 로서 매우 양호하였다. 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자녀양육효능감이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9. 자녀 효도, 자녀양육효능감, 가정경제수준과 아버지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

	자녀 효도	자녀 양육 효능감	가정 경제 수준	가정 생활 만족도
자녀 효도	1.00			
자녀양육효능감	.38***	1.00		
가정경제수준	.12**	.12**	1.00	
가정생활만족도	.46***	.58***	.28***	1.00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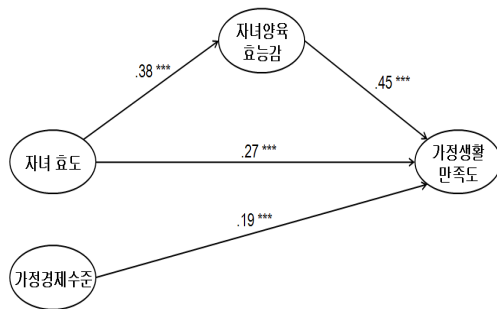


그림 3. 검증모형: 자녀 효도가 아버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10. 효과분석: 자녀 효도, 자녀양육효능감, 가정경제수준이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자녀 효도	→자녀양육효능감	.38***	-	.38***
	→가정생활만족도	.27***	.17**	.44***
자녀양육효능감	→가정생활만족도	.45***	-	.45***
가정경제수준	→ 가정생활만족도	.19***	-	.19***

*** $p < .001$

이 $P=.45$ 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자녀 효도는 자녀양육효능감에 대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녀 효도는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로계수의 값은 경로모형 내의 다른 경로계수들에 비해 가장 낮았다.

그림 3의 경로분석 결과를 기초로 효과분석을 한 표 10에서 세 변인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자녀

양육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직접효과와 마찬가지로 .45로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자녀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하여 총 .44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19로 다른 두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표 11, 그림 4, 표 12는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자녀 효도가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일련의 분석표들이다. 표 11에서 자녀 효도, 자녀양육효능감, 가정경제수준과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의

표 11. 자녀 효도, 자녀양육효능감, 가정경제수준과 어머니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

	자녀 효도	자녀 양육 효능감	가정 경제 수준	가정 생활 만족도
자녀 효도	1.00			
자녀양육효능감	.37***	1.00		
가정경제수준	.05	.16***	1.00	
가정생활만족도	.37***	.54***	.36***	1.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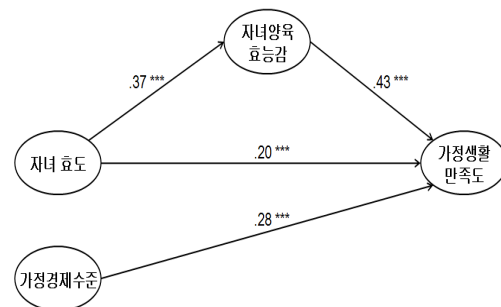


그림 4. 검증모형: 자녀 효도가 어머니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12. 효과분석: 자녀 효도, 자녀양육효능감, 가정경제수준이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자녀 효도	→자녀양육효능감	.37***	-	.37***
	→가정생활만족도	.20***	.16***	.35***
자녀양육효능감	→가정생활만족도	.43***	-	.43***
가정경제수준	→가정생활만족도	.28***	-	.29***

*** $p < .001$

상호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버지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와 $r=.54$ 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자녀 효도와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정경제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상관계수보다 약간 높으나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다.

그림 4는 자녀 효도가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한 결과이다.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GFI=.998$, $NFI=.963$, $RMR=.053$ 으로서 아버지집단에 대한 경로모형과 마찬가지로 매우 양호하였다. 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자녀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P=.43$ 으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점에서 아버지집단에서의 경로분석과 동일하였다. 자녀 효도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두 번째로 높은 점도 아버지 집단의 분석과 마찬가지로였다. 그 다음으로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그리고 자녀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크기를 보면, 그림 3에서보다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그림 4의 경로분석에 토대하여 효과분석을 한 결과이다. 표 12에서 어머니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값의 전체효과를 나타내는 변인은 자녀양육효능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 10의 결과와 마찬가지로이다. 그 다음으로 자녀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하여 .3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자녀양육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에 비해서는 낮은 값이지만,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보다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아버지 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이나 어머니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일치된 패턴을 보였다. 그러므로 자녀양육효능감과 자녀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를 합해 볼 때,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의 약 3배에 가까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VI.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들이 지각한 자녀 효도의 구성개념을 이해하고, 자녀의 효도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부모들이 자녀 효도에 대한 자유반응형 문항에 응답한 내용을 질적 분석한 결과를 통해, 자녀 효도의 구

성개념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부모들이 인식할 때 자녀의 효도 행동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부모들이 가장 감동하는 자녀의 효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불효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순종이 가장 대표적인 구성개념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부모를 도와주거나 아껴줌, 성실함, 학업충실, 다정한 말, 잘 성장함, 정다운 행동 등이 자녀의 효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는 인간의 도리라는 반응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이 외에 올바른 인간 형성, 자녀에게 도움이 됨, 부모의 회생에 대한 보답, 가정 화목, 혈연관계 등이 지적되었다. 나아가서 양적 분석의 결과, 자녀의 효도는 가정경제수준보다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녀 효도는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자녀양육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있음으로써, 자녀양육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토대하여 아래에서는 네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 효도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개념으로서 순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지 않은 한국인의 정신적 가치와 일관된 집단 정체성에 접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간의 도리로서 효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아동·청소년 자녀의 순종이 부모에 대한 효도의 강력한 방법론이라면, 효도는 인간의 도리로서 관계 맥락 속에서 인간 존재를 부분적으로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설명이 가능

하다. 셋째, 자녀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한국 부모에게는 효도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넷째, 자녀 효도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규명해 보기로 한다. 자녀 효도의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자녀양육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는, 자녀의 효도가 한국 성인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한국인의 효도 인식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선행연구가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본다. 앞으로 더욱 정교한 연구설계에 기반한 누적된 연구결과들을 통해 한국인의 효도에 대한 심리학적인 설명이 보다 명료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1. 자녀 효도의 핵심 구성개념으로서 순종

소학의 제 2권인 명륜 제 2장 18절을 보면 孝子之養老也 樂其心 不違其志 라는 구절이 있다(성백효, 1994). 그 구절을 번역해 보면, 효자가 늙으신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기본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소학이라는 책이 한국 역사상 조선 초기에 서당이나 향교 등 모든 유학 교육기관

에서 필수과목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조선시대 8세 전후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배우던 수신서(修身書)였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학은 중국 송나라 주희에 의해 처음 엮어질 때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군자를 기르기 위한 교훈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유교의 효(孝)와 경(敬)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즉 중국의 유교에서 강조된 효도의 정신이 우리나라의 조선 초기부터 아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교육과정의 핵심을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소학의 한 구절을 다른 책의 한 구절과는 다른 무게로 신중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즉 소학은 조선 초기 이후 한국인의 정신적 뿌리가 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아동들이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했던 필수과목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성장과정에서 그 교육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송유 억불정책을 기조로 했던 조선왕조는 1393년부터 1910년까지 500여 년 동안 존속되어 왔고, 한국 문화의 직접적 전통의 기반을 형성한 시기였다.

조선왕조가 패망하고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이 된 1910년 이후 현재까지 10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점은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부모들도 효도에 관한 인식에 있어 여전히 약 600년 전에 시작된 조선시대의 서당이나 향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강조해서 가르친 소학의 내용과 변함없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 중 고등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감동하는 자녀의 효도는 자녀의 순종이었다. 즉 부모들에게 ‘자녀가 어떻게 효도할 때 가장 감동이 됩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할 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5 참고). 한편 ‘자녀가 어떻게 할 때 불효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말대꾸하고 반항하며 부모에게 대들며 제멋대로 하는 등 말을 안 들을 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7 참고). 결국 부모들이 지각하는 아동·청소년 자녀들의 불효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순종의 중요성을 부모 2명 중에서 1명이 지적하였다. 선다형이 아니라 자유반응형 답지에 응답자들이 직접 기록한 반응이 이 정도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거의 압도적인 반응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핵심임을 가르치고 있는 소학의 정신과 일치한다. 소학에서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군자를 기르기 위한 교훈으로 효(孝)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효의 방법론이 21세기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가 멸망한지 100년이 지났고, 조선시대가 시작된지는 6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와 국제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대한민국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녀의 효도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변화의 속도가 변화하는 시대에서,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실제로 가치에 많은 변화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

국인의 정신 가운데 변화하지 않고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면면히 이어져온 정신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효도와 관련된 가치인식과 효도의 방법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60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이긴 바위처럼 변함없는 정신적 가치로서의 효도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가치로 판단된다.

세대차(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나 자녀가치(Kim, Park, Kwon, & Koo, 2005)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 사람들의 가치가 변화하고 과거와는 다른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인의 성취의식에 대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라든가,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4a;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한국인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 짓는 일관된 정신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을 위해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결과, 방희정(2000)은 ‘한국 가정이 상당부분 유교적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급변하는 포스트모던 시대 상황 속에서도 부모자녀관계는 비교적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즉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적 현상으로 효의 원리와 부모자녀 동일체감 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희정(2000)의 결론은 이 연구에서 검증된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순종이 효도 정신의 핵심적인 구성개념으로 중요함은 다른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서도 밝

혀졌다. 즉 고등학생의 부모들은 자녀의 효도 행동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의바르게 공경하는 것과 같은 순종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효로는 말 안 듣고 반항하며 대들고 말대꾸하는 등으로 표현된 순종하지 않음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여 순종의 미덕이 효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다.

2. 인간의 도리로서 효도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할 때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이르게 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를 밝혀 준다. 즉 사람의 도리로서 효도라는 가치를 드러내어 준다. 이 연구에서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것은 기본이 되는 도리이며, 인간의 도리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며,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 가치라고 응답하는 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표 6 참고).

초 중 고등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만이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이와 동일한 반응 패턴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임순, 김의철과 박영신(2009)이 중학생 부모 520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

한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인간의 도리라고 응답한 경우가 38.8%나 되었다. 또한 안자영, 김의철과 박영신(2009)이 대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리라는 반응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조선시대 초기에 유교에서 강조되었던 효도와 관련된 가치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글을 시작할 때 인용한 고석운 씨의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을 상기하게 된다. 즉 효도란 자식의 도리, 인간의 도리인 것으로 한국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인간의 도리가 그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개별적인 속성이 아닌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 윤리에서 찾아졌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즉 부모자녀관계의 맥락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사실이다. 결국 동양 사상에서의 인간관에 토대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정의와 인간성에 대한 정의는 개별적인 개체로서의 존재의식이라기 보다는 관계 내에서 찾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중에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이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효도라는 관계 윤리를 다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가장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성 중심의 서양에 비해 유교문화권의 동양은 관계문화임이 Kim(1995)에 의해 지적되

고, 두 문화의 특징들이 개념모형으로 제안된 바 있다. Kim(1995)은 개인주의가 합리와 이성을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자유주의에 토대한다면, 집단주의는 관계성과 우리성을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유교주의에 토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개인의 심리 차원에서 개인주의에서는 자율성이 중요하다면 집단주의는 수양과 노력이, 대인관계 차원에서 개인의 흥미와 계약이 중요하다면 집단주의에서는 의무와 공동 운명이,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원칙적 윤리와 규칙이 중요하다면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적 조화와 역할 및 의례가 부각됨을 밝혔다. 물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단순화한 이분법으로 우리 문화를 모두 집단주의의 특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 정리는 우리 사회 관계문화의 기본적 속성을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대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 박영신과 김의철(2005)은 신뢰관계에서 우리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러한 탐색은 우리 사회 관계문화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 사람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 갖는 장점이나 역량 그 자체를 신뢰한다기보다는, 자신과 상대와의 관계 구조와 관계 강도를 신뢰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예컨대 자녀가 심각한 일탈행동으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에 있어도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자기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였다. 이러한 내 자식이라는 혈연관계에 대한 믿음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가 결코 일반 청소년의 부모보다 적지 않았다(박영신, 김의철, 탁

수연, 2004). 그래서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지각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문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과 박연정(2008)이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를 분석하였을 때 혈연유대적 동기가 가장 높았다. 자녀를 통해 혈연을 강화하려는 생각이 높다는 결과는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를 접근함에 있어 문화적인 통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한국 부모에게 자녀 학업충실의 의미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순종할 때 감동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물론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녀의 순종이 매우 감동적인 효도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보다 더욱 감동을 주는 자녀의 효도는 학업충실이였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공부를 스스로 잘 할 때,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것을 효도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감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 부모집단에서 밝혀진 이러한 결과는 전혀 다른 4개 남녀 고등학교의 학부모 집단을 표집 하여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와도 일치하였다. 즉 가장 감동이 되는 효도를 질문하고 자유반응형식으로 기록하게 하였을 때 고등학생의 부모들은 자녀가 학업에 충실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이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

은 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충실하면 부모는 그때 가장 감동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나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서 모두, 자녀의 성실함이 부모를 가장 감동시키는 효도 중에 세 번째로 많이 지적된 중요한 것이었다. 그 성실함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내용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것과 노력함이었다. 부모들이 초 중 고등학생의 자녀들을 볼 때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실한 태도는 결국 학업에서의 성실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인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노력하는 일은 학교에서의 학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으면 부모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숙제도 알아서 하고, 고등학생 같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학생이 성실하다는 것은 학업충실과 크게 무관한 내용이라고 하기 어렵고, 학업충실과 성실함을 합한다면 그 비중이 대단히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부모에게 자녀의 학업충실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대학교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자녀의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의 학업에 대한 뒷바라지에 전념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특별한 주의집중이 필요 없는 너무나 흔한 현상이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한국 부모들이 자녀가 성장해 나가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시점이 되었을 때 강한 교

육열을 갖고 정서적 지원만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제공하는 현상(박영신, 김의철, 2002)이, 부모의 심리와는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학업 충실을 가장 감동적인 효도로 생각하는 부모의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다. 물론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일으키고 있는 부모 심리를 이 연구의 결과가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적인 역동을 매우 부분적이거나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의 학업충실에 감동할 정도로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로서 하나의 실마리는 관계적 자기(Kim & Park, 2006a)에서 찾아질 가능성이 예측된다. 자녀의 성취가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녀의 성취가 아니고, 부모 자신의 성취나 다름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자녀의 만족과 행복이 부모와는 무관한 별개의 존재가 느끼는 만족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객관적으로는 독립된 개체이지만, 마음으로 관계 맺은 상호 연결된 존재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인식은 부모와 자녀의 개별적 존재에 대한 구분 없이 상호교류하고 중복된 자기개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그림 1을 통해서도 시사되었다.

이 연구에서 자녀가 학업에 성취하는 것이 효도라는 부모들의 인식은 자녀가 잘 되는 것

을 효도로 생각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를 질문하였을 때, 잘 성장함이라는 반응이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표 5 참고). 최경숙(1998)도 시부모 및 친정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요인분석 했을 때 자신이 잘 되는 것을 효라고 응답자들이 반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인식이 가능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공유된 존재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를 Kim(2002)은 관계적 자기로 명명하고 개인적 자기와 비교한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4a).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는 관계문화 속에서 한국 부모들은 자녀와 공유된 자기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부모에게 어떠한 행위나 태도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자녀 자신이 잘 성장하고 성공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부모들로 하여금 대리적인 성취 경험을 하게하며 그것을 효도로 인식한다(Park, 2008)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4. 자녀 효도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다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인간이 가진 공통의 욕구일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때 보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그 시대와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의 가치와 문화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 형성에서의 독특한 측면들이 밝혀지고 있다. 박영신과 김

의철(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신뢰가 자녀양육효능감을 증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켰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자녀가 성실하고 학업에서 성취할 때,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에 토대하여, 자녀에 대한 신뢰 정도가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상 중 하로 구분되는 다양한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 한국 성인의 행복을 분석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행복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성인의 삶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행복이나 가정생활만족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핵심 요소인가를 보여준다. 자녀의 성공과 같이 자녀 자체가 잘 성장하고 긍정적으로 성취하는 일이, 그리고 자녀에 대한 신뢰와 같이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모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둔 한국 성인의 삶은 본인의 역량이나 본인의 성취에 의해서만 만족과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서양과 같은 다른 문화와는 차이점이 있다. 자녀가 잘 성장해야 하고 자녀가 잘 성공해야 성인 부모의 삶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취를 통해 대리성취를 경험하고 삶의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자녀가 성취하지 못하였을 때는 성인 부모 본인의 성취 여부와 별개로 완성되지 못한 행복의 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 자신의 삶의 성취와 행복만이 아니라 자녀의 성취와 행복

이 전제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므로, 부모와 자녀는 관계의 끈에 서로 묶여 있는 존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부모들이 왜 자녀의 대학입학시험에 그렇게 열정을 다하며,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왜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자녀에 대한 극단적 희생과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한국 부모들의 행동 원인에 대한 설명의 실마리를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녀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인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녀가 잘 되어야 부모 자신이 잘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분리된 개체에 대한 공유된 자기인식이, 자녀의 성취에 대한 지원이나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의 경로분석과 표 10의 효과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녀가 효도를 하면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자녀의 효도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며, 높아진 자녀양육효능감은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임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효도와 자녀양육효능감, 이 두 가지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크기의 4.5배나 됨으로써, 그 영향력의 정도가 매우 강력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녀 효도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경로분석과 효과분석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에서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이해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서 가정의 경제생활수준보다는 자녀의 효도와 자녀양육효능감이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더욱 강력하게 증진시킴으로써, 결국은 관계적인 자원과 심리적인 자원이 경제적인 자원보다 인간 행복에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박영신, 김의철, 2009)과 일관된 맥락에서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 성인의 보다 행복한 삶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의 효도가 미치는 영향과 같이 토착적이고 인간관계적인 시각에서의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는 전체 연구들 속에서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토착심리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발견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한국인의 토착적 부모자녀관계를 규명하려고 할 때 효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핵심이 되는 작업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 글로벌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600년의 뿌리를 지니고 있는 효도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는 측면은 무엇이며 이어지고 있는 측면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한국인 심리를 이해하고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 심리의 시각에서 본 효도의 현대적인 의미 그 자체를 규명하는 작업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현대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는 효도의 정신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경험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밝혀나갈

필요가 있다.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및 심리적인 역동의 파악을 위한 후속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이 보다 정교하게 고려하여 설계되고 분석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정보들이 누적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동·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효도의 개념은 어떠한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부모들이 자녀 효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서 표집대상이 달랐지만 고등학생 부모의 자녀 효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다루었으므로, 성인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를 다룬 점에서는 이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에 대한 효도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의 개념을 반드시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간에 나타날 수 있는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부모와 자녀라는 역할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세대와 부모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효도와 관련된 표상에서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공통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인지에 대한 정교한 규명이 요구된다.

둘째, 대학생 및 그들의 부모들이 효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의 부모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부모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생은 발달 단계적으로 청년 후기에 해당하고, 초 중 고등학생과는 생활환경에 큰 차이가 있고 성인 초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 본인들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부모들도 초 중 고등학생의 부모들과는 다른 형태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대학교 입학이라는 목표 하에 자녀의 학업성취를 독려하는 성취압력이 강한 지원적인 부모자녀관계라면, 일단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상당부분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삶의 반경이 넓어진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정도가 고등학생까지에 비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부모들이 자녀의 효도에 대해 갖는 인식도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 부모집단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연구에서 대학생과 대학생 부모집단의 효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 자녀 발달단계별 효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결과들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효 지각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의 성별로 자녀효도에 대한 토착심리를 질적 분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성별로 자녀의 성별에 따른 효 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부모의 자녀효도에 대한

지각에서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이 상호작용하는지 여부는 후속 연구에서 검토되면 보다 정교한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 자녀효도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분석함에 있어서도 부모의 성별을 고려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 각각에 대해 분석하기는 했으나 자녀의 성별이 고려되지는 않았다. 자녀의 성별도 고려하여 아들의 효도와 딸의 효도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살펴봄으로써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 간의 상호작용 여부가 확인된다면 흥미로운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도구 제작 과정에서 부모의 성별만이 아니라 자녀의 성별도 확인되고, 성별에 따른 자녀의 효도와 관련된 보다 정교한 질문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효도에 대한 연구 주제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연구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응답한 부모집단의 평균 연령은 초등학생 부모가 40세, 중학생 부모가 43세, 고등학생 부모가 45세로서, 40대 초반과 중반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자녀가 부모들에게 어떻게 효도한다고 지각하며, 그로인한 영향이 어떠한지를 연구하였다. 그런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이었던 40대 초반의 부모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자녀로서 역할을 하며 그들의 부모 즉 60대 70대 80대 심지어는 90대의 노부모들을 모시거나 직접 부양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살아계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양의 책임을 지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

다. 즉 이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이었던 부모집단이 성인 자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노부모를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효도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효도와, 자신이 부모들에게 실제로 하고 있는 효도의 행동적 언어적 표현의 차이 및 가치지향 그리고 정서적 특성들을 비교해 본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경숙(1998)은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효의식과 효행동을 분석한 바 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효의식과 효행동 및 다양한 배경정보 변인들이 추가되면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앞으로 한국 사람이 정을 느끼는 심리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관련 언어표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정한 표현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바 있다. 사랑해요와 같이 다정하고 애교스러운 말을 자녀가 할 때 부모들은 그것을 효도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간에도 다정다감한 언어적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즉 마음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얼마나 정감 있게 표현하느냐가 인간관계를 더욱 가깝고 친밀하게 하며 소통의 원활유 역할을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선행 연구들에서 생활만족에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어 온 정서적 지원 변인이 다정한 표현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부모들이 효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다정한 표현은 정

서적으로 정이 흐르는 표현일 것이다. 한국인이 정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는 작업 중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6. 맺음말

이제 이 글을 맺으며, 신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을 떠올리게 된다. 즉 ‘문화와 심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직시하고 한국 문화심리학의 이론 정립’(최상진, 2000b)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가 하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효도라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에 토대하여 접근해 보았다. 그림 1은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개념모형을 효도의 심리적 과정과 영향에 초점을 두고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제안된 개념모형(그림 1 참고)의 일부 변인들 사이의 관계는 개별적인 연구들에서 검증되기도 했으나, 아직 모든 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잠정적이며 개념적인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 가정되고 있는 심리적인 역동들은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검증을 누적해 나가야 하며, 이에 따라 개념모형이 현재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형태로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 그리고 자녀의 성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강한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마음속에 어떠한 심리적 역동을 일으켜서 결국 효도의 심리와 행동으

로 표현되어지는지, 그리고 자녀가 잘 성장하고 성취를 이루며 만족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어떻게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며, 화목한 가정생활에 대한 부모의 만족과 행복감 증진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효도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 이해라는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에 대한 정리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술 밥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을 여기에서 상기하게 된다.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심리적인 역동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과학적 검증이 간단히 완성될 수는 없다. 변인과 변인들간의 부분적인 관계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들이 토대가 되어야 하고,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동시적인 상호역동에 대한 검증들이 잇달아야 하며, 언젠가는 통찰된 개념모형이 통합적으로 정리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질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지각한 자녀효도의 구성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양적 분석을 통해 자녀효도와 관련된 변인들간의 역동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먼지를 바라보고 우주를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이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의 검증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라는 하나의 과제는,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입구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숲으로 가려진 거대한 산과 같이, 여전히 묵묵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참고문헌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성인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63-109.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

- 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특집호, 21-55.
-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95-132.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6(2), 109-141.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73-108.
- 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2009).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분석: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28.
- 방희정 (2000).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41-66.
- 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7). 한국 성인의 관계적 자기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23-63.
- 성백효 (1994). 소학집주(小學集註). 동양고전국역총서 20.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신영이, 박영신, 김의철 (2009). 고등학생의 효도 이유와 방법 그리고 불효에 대한 인식.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07-109.
- 안자영, 김의철, 박영신 (2009). 대학생과 부모세대집단별 효도와 불효에 대한 의식의 차이와 공통점 분석.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99-101.
- 윤종희 (2007). 한국인의 이상적 아동관에 나타난 양육신념체계와 양육행동 탐색을 위

- 한 생태학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14(1), 65-83.
- 이임순, 김의철, 박영신 (2009). 중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11-113.
- 이종민, 최영희 (2008).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 귀인 양식과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5(4), 37-50.
-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4), 67-91.
- 조선일보 (2009). 아흔 노모, 칠순 아들의 '동행': 치매 어머니 모시고 6년째 복지관 함께 다니는 고석운씨. 2009년 2월 5일 A9 면.
- 최경숙 (1998).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효의식과 효행동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5(2), 128-148.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격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65-82.
- 최상진 (2000a).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2000b). 한국 문화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난 20여년 간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얻은 문화심리학적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25-40.
- 최중숙, 박영신, 김의철 (2003).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학부모와 교육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93-194.
- 함병미, 박영신, 김의철 (2003). 부모와 초등학교 자녀가 지각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91-192.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2000). The parental efficacy scale. Unpublished research instrumen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SA.
- Kim, U.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psychological, cultural and ecological analysis*. NIAS Reports, No. 21.
- Kim, U. (2002).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destructiveness, creativity, and potential: Indigenous analysis of the self, relationship, cultures and civilizations. Presidential address of Division of Psychology and 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Singapore, July 7-12.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In C. Spielberger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 Park, Y. S. (2006a).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267-285. Greenwich, C. 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Kim, U., & Park, Y. S. (2006b).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s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4), 287-292.
- Kim, U. & Park, Y. S. (2008). Chapter 21. Cognitive, relational and social ba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Confucian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cultural perspectives. In R. Sorrentino & S. Yamaguchi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within and across Cultures*. 491-515.
- Kim, U., Park, Y. S., Kwon, Y., & Koo, J. (2005). Values of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hange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4(3), *Special Issues*, 338-354.
- Kim, U., Yang, K. S., & Hwang, K. K. (Eds.)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24-48. New York: Springer.
- Park, Y. S.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vited address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101.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Park, Y. S. (2008).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 Korea.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16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 11-12.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Suh, Y. U., Kim, U., & Park, Y. S. (2009). Indigenous analysis of respect.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December 11-14, New Delhi, India.

1 차원고접수 : 2009. 07. 10.

수정원고접수 : 2009. 08. 26.

최종게재결정 : 2009. 08. 28.

Conceptualization and Analysis of Filial piety of Adolescents as Perceived by their Parents: With a specific focus on child-rearing efficacy and family life-satisfaction levels

Park, Young-shin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Kim, Uichol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Han, Kee-hye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ion of filial piety among par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rovides a conceptualization of their perceptions of these notions. In order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hildren and their perceptions of filial piety and also sex differences were examined. Moreover, the influences of filial piety and socio-economic status on child-rearing efficacy and family life-satisfaction were analyzed. A total 1,428 parents (690 fathers and 738 mother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hildren (489, 425, 514 respectively) completed an open-ended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perceived obedience as the best indicator of filial piety and parents of high school children perceived diligence in academic study as the best indicator of filial piety.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hildren perceived disobedience as most running counter to filial behavior. Mothers perceived assisting in household chores as the best indicator of filial behavior and fathers perceived caring and obedience as the best indicator of filial behavior. All parents believed that observance of filial behavior as an essential duty of all human beings. Parents reported diverse verbal expressions of filial piety. When their children failed to live up to their standards of filial behavior, parents reported feeling disappointed. Second, in path analysis, children's filial behavior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respondents' family life-satisfaction, and an indirect influence mediated by child-rearing efficacy. Child rearing efficacy had the greatest impact on family life-satisfaction, followed by children's filial behavior and then by the socio-economic status for both the mothers and fathers of adolescents.

Key words : Filial piety, indigenous psychology, child-rearing efficacy, family life-satisfaction, obedience, diligence to study, interpersonal duty, parent-child relationship.